

순천바이오센터 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분석 계약

제조사 등 5곳과...연 4억원 수익
13년 축적 기술 바이오 산업 강화
연구인력 10명, 30억원 장비 보유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가 숙취해소제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업을 상대로 연 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

30일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숙취해소제 제조기업 5개사의 의뢰를 받아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해 3억원 상당 핵심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연구 인력 3명을 두면서 인체적용시험 항목인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의 동시 분석설비를 확립했다. 센터는 지난 24일 서울 '글로벌의학 연구센터'와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분석 계약을 맺어 숙취해소제 관련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는 숙취해소의 기능성을 표시

·광고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 입증이 의무화된다. 센터는 숙취해소제 관련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분석 계약을 추진했다.

올해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효능 검증비 4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글로벌의학 연구센터와는 지난해 6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기업유치와 관련해 순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물전환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의학 연구센터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비임상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한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는 13년여 축적한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곳에서는 10명이 연구를 하고 있으며, 30억원 상당 50여 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순천시는 농업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이 순천의 미래 신산업 범주에 들었다.

한편 오는 2월7일에는 순천시와 순천대, 전남바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와 글로벌의학 연구센터가 지난 24일 '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의무화'에 따른 광고 실증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계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이오진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순천대의 글로벌 30 사업과 연계한 '승주 지식캠퍼스 구축'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노관규순천시장은(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 이사장)은 "13년여 축적된 순천 바이오센터의 기

술과 연구 성과가 산업 수익 발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원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순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먹거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 병원 3월부터 운영



오는 3월부터 광양시에서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관계없이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시는 지난 29일 다나소아과의원과 시정 접견실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다나소아과의원은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일·공휴일 등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를 맡는다.

협약식은 다나소아과의원 대표원장(김도균)이 참석해 지역 내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노력할 것을 서명했다.

앞서 광양시는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일 공공심아어린이병원 공모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원 의료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빠른 대안 마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국비 지원 사업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추진해 이르면 3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 지침을 준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인건에 있는 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의료기관과 약국 협약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기관은 2년간 유지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 보건의료원-순천제일대 산학협력 협약

인적 교류·기반 시설 공유 협력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순천제일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

두 기관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제일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구례군 보건의료원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용성 높은 임상 경험을 하게 된다.

또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사업들도 실습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인적 교류와 기반 시설 공유, 교육과정·교재 개발 등에 힘쓰기로 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 전문가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8기 상인 18명 최종 선발

올해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를 이끄는 8기 상인 18명이 최종 선발됐다.

여수시는 지난 27일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1차 서류 합격자 51명과 음식 품평회를 열어 낭만포차 운영자 18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운영자 명단에는 시민 5명, 청년층 7명, 사회적약자 3명, 인근 지역주민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수시는 전국 식품·조리 관련학과 대학교수 10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했다. 평가위원들은 요리과정과 완성품에 대한 요리 맛, 창의성, 대중성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현장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8기 운영자 18명은 운영협약을 맺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보성키위 명성 되찾는다

선별시스템 갖춘 거점센터 조성
생산 시스템 혁신·유통망 강화

보성군이 고품질 키위 생산과 보성키위 명성을 알리는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최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이 벌교읍 채동선읍약당에서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완료되면 비파과 선별시스템을 갖춘 보성키위 거점센터가 조성되고 표준화, 규모화된 유통시스템과 보성키위 스마

트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성키위의 안정적인 전국 유통망이 완성된다.

또 민간 조직을 활용한 신활력추진단 및 활동가 조직을 양성해 보성키위의 홍보·판촉(마케팅)과 관련한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기술·가공·유통 분야의 교육과 전문 지원 인력을 통해 참여자를 지원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초청 강사로 키위산업 분야의 전문가인 전남도 농업기술원 조운섭 박사, 김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김운희 사무국장이 차례로 나서 키위 유통환경과 산업 발전의 문제점과 보성키위 발전 방향, 청년 농부 활동 사례 등을 발

표했다.

강원석 보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은 "보성키위가 보성의 활력을 함께 여는 열쇠라는 의미로 '키-위 투게더'라는 슬로건을 설정했다"라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보성키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차지하는 보성키위가 지난 2022년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1호로 등재됨과 동시에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을 시작했다"라며 "보성키위의 생산 시스템 혁신, 생산 농가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성군이 대한민국의 키위 중심지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농가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고흥군이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올해 2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생산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과 다른 법령에서 피해보상을 지원받은 경우와 각종 법령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